

2026년 8월 넷째 주, 구역 공과

29 믿음에 관하여

-요한복음 4장 43~54절(신약 149)-

예배순서

• 찬송: 546/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204/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몸이 안 좋을 때 몸을 추스르기 위한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면? (예: 보양식, 잠, 등등)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 그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 그의 아들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 알려준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믿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선포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왜 믿음이 중요할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새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면,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곧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입증한다. 이 새 생명의 축제에 동참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1. 참된 믿음은 _____에 기초한다.

본문에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1)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에 대해 예수님은 냉정한 반응을 보이신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요 5:44~45)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영접했으나, 예수님은 도리어 탄식하셨다. 그들은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에서 기적을 행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권력층을 꾸짖으신 통쾌한 ‘쇼킹한 사건과 표적’ 자체에 열광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 없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믿었다(요 4:41~42).

2) 예수님이 절박하게 찾아온 왕의 신하를 향해 탄식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km를 달려와 간청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복적이고 표적 중심적인 태도를 짚으셨다. 이는 오늘날 불안한 마음에 점술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겠다”라며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무속적 태도와 같다. 참된 믿음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맞볼 수 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내게 뭘 원하실까?” 그걸 잡는 게 믿음이다. 내게 일어난 일(기적,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2. 믿음은 _____ 하고 _____ 해야 한다.

표적과 기적 자체가 무익한 것은 아니다. 고난과 위기, 신비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말씀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요 4:50) 왕의 신하는 처음에 “내려오셔서 고쳐 달라”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라는 말씀만 주셨을 때, 그는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던 중에 길에서 하인을 만나 아들이 병을 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갈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을 믿고 ‘가지’ 않는다(순종하지 않는다). 기적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 진정한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말씀 보라 했으니 말씀 보고, 충성하라 했으니 충성해보고, 믿고 갈 때 믿고 할 때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나눔과 기도

- 왕의 신하는 아들의 질병이라는 인생의 위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 나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계기(질병, 가정 문제, 실패, 절박한 기도 응답 등)는 무엇이었는가?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위정자들, 열방, 홀리 위크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자.